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즉시 보도

개인정보위, 한전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사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한전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접수받아 11월 23일에 조사에 착수하고 '초동대응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해커에 의해 한전ON 고객정보[1]와 전자조달시스템(SRM) 시스템 이용자 정보[2]가 유출되었다고 2026년 11월 22일 18시경 개인정보위에 신고하였다.

※ 해커로부터 정보탈취 이메일 수신(11.19.)하고 다크웹 게시 사실 확인 및 해커로부터 입수한 샘플 데이터 확인(11.20.)

1)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고객번호, 계좌 또는 카드정보 등 65만 여명

2)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사번, 이메일 등 87만 여명

한전은 고객센터(☎123)를 통해 피해상담 및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좌·카드정보 관련 금융당국에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전으로부터 유출 통지를 받은 이용자들은 각종 인증 요구,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유알엘(URL) 클릭 및 앱 설치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위는 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상 불법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현장 조사,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유출 경위,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및 유출 통지·신고 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 후, 법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예정이다.

※ 그간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향(9.11. 20억 → 중대 반복 50억), 위반행위 전면 공표제, 기관장 징계 책임 강화, 보호수준 평가 연계 등 책임성 강화조치 추진

담당 부서	조사조정국 조사총괄과	책임자	과 장	강대현 (02-2100-3101)
		담당자	조사관	나일청 (02-2100-316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